

### Ⅲ. 보험산업 동향과 전망

#### 1. 주요지표

-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성장세를 회복한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FY2010에도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성장률은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FY2009 8.9% → FY2010 8.1%)
- 생명보험은 FY2009 하반기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의 큰 폭 성장으로 4.9%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FY2010에도 생사혼합보험 및 변액보험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성장률은 FY2009 수준인 4.8%를 나타낼 전망이다
- 손해보험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기손해보험이 고성장을 나타냈고 자동차보험도 성장세를 회복하여 FY2009에는 16.7% 성장했으며, FY2010에도 이러한 성장세가 이어져 13.9%의 성장률을 시현할 전망이다

**<표 4>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E)		FY2010(F)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생명보험	75.1	13.0	73.6	-2.0	77.1	4.9	80.8	4.8
손해보험	34.0	14.9	37.5	10.3	43.8	16.7	49.9	13.9
전 체	109.1	13.6	111.1	1.8	120.9	8.9	130.7	8.1

- 보험침투도(수입보험료/경상GDP\*)는 수입보험료의 상대적인 고성장으로 FY2009, FY2010 각각 11.1%, 11.2%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 보험침투도의 경상GDP는 FY기준이며, FY2010 경상GDP는 6.8% 성장 전망

<그림 15> 보험침투도 추이



- 보험산업 전체 총자산은 수입보험료의 꾸준한 성장과 금융시장 안정으로 인한 투자환경 호전으로 11.1%의 견조한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표 5> 보험산업 총자산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E)		FY2010(F)	
	총자산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생명보험	305.4	11.8	328.3	7.5	369.2	12.4	407.6	10.4
손해보험	66.0	15.9	74.0	12.1	85.8	15.9	98.0	14.2
전 체	371.4	12.5	402.3	8.3	454.9	13.1	505.5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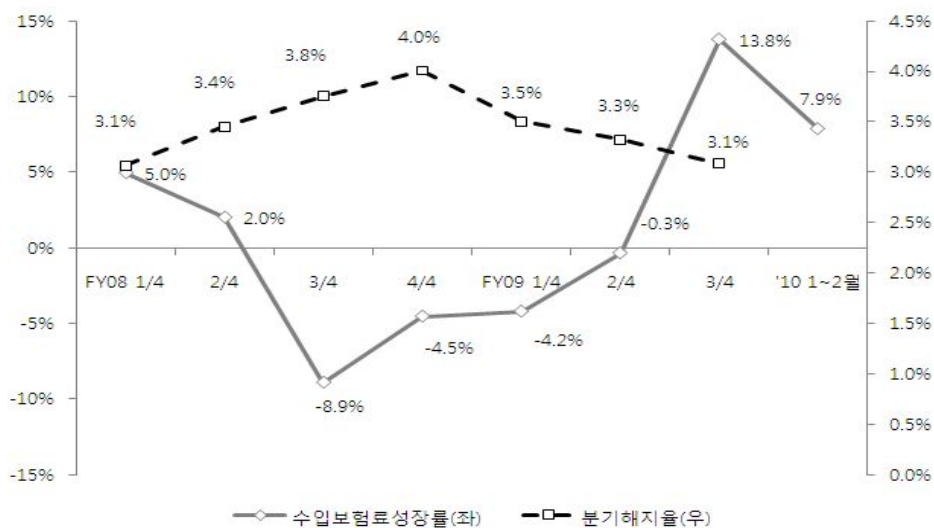
## 2. 생명보험

### 1) 수입보험료

□ FY2009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 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연금과 저축성 보험을 중심으로 신규 수요가 회복되고 해지율이 진정되면서 4.9%의 플러스 성장을 시현함.

- 생사혼합보험은 2009년 이후 20% 전후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일반연금 및 변액연금보험은 연금보험료 인상에 따른 선수요가 반영되어 2009년 말 큰 폭의 성장세 시현
- 생명보험 전체 분기해지율은 FY2008 4/4분기 4.0%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안정되면서 FY2009 3/4분기에는 예년 수준인 3.1%까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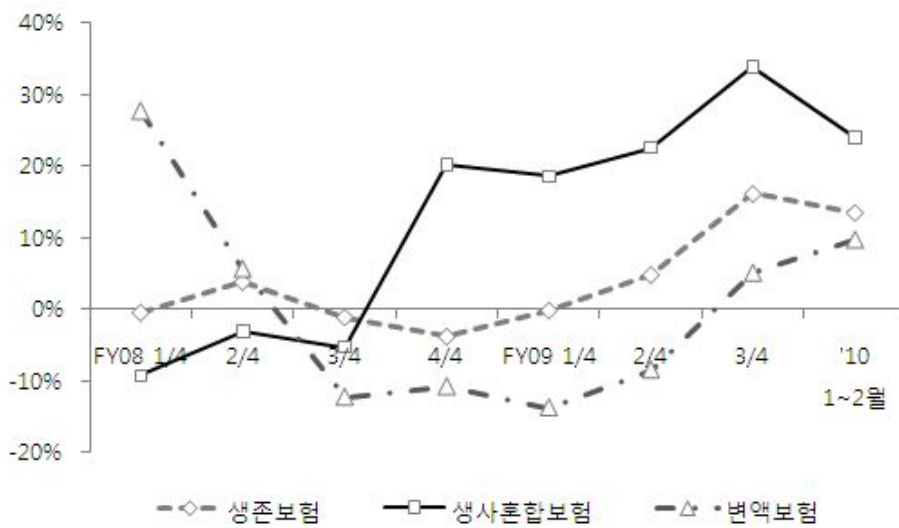
<그림 16> 수입보험료 성장률 및 해지율



주 : 해지율=(효력상실액+해지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 FY2010에는 금리 및 세계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생사혼합보험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금융시장 안정으로 변액보험 수요도 증가하면서 성장률은 FY2009 수준인 4.8%를 나타낼 전망이다.
- FY2009 하반기에 초과 성장한 연금보험의 성장세가 하반기에 약화되고 사망보험의 저성장 기조 또한 지속될 전망이나, 생사혼합보험과 변액보험의 고성장이 전체 수입보험료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

<그림 17> 저축성보험 성장률 추이



- 2010년 말 퇴직보험제도 폐지를 앞두고 퇴직연금 보험료가 생명보험회사로 얼마나 유입되는 지에 따라 수입보험료 실적치는 크게 바뀔 수 있음.

## 2) 일반계정 종목별 수입보험료

### 가) 사망(보장성)보험

- FY2009 종신보험 수입보험료는 증가하였으나 질병보험 수입 보험료가 감소하면서 사망보험은 전체적으로 1.9% 감소함.
  - FY2009 2월 누적 사망보험 계속보험료는 질병보험의 해지 증가로 -2.6%의 성장률을 나타낸 반면, 초회보험료는 종신보험과 통합형 보험을 중심으로 44.5% 성장
- FY2010 사망보험은 종신보험 및 통합형 보험의 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질병보험의 마이너스 성장세가 계속되면서 2.9%의 저성장을 나타낼 전망이다.
  - 종신보험과 통합형 보험은 계속보험료의 꾸준한 유입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보험회사들의 리스크 부담이 큰 정액형 질병보험 부문에서의 수입보험료는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
  - 상품표준화가 단행된 실손의료보험은 특약 위주로 판매되고 있어 질병보험 부문의 감소세를 반전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

### 나) 생존보험

- 생존보험은 2009년 말 경험생명표 개정으로 연금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가격인상 전에 미리 보험에 가입하려는 선수요가 반영되어 초과 성장함.
  - 새로운 6차 경험생명표가 2009년 10~12월에 보험사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면서 생존보험 초회보험료는 FY2009 2/4분기 29.7%, 3/4분기 107.2% 성장

- FY2009 2월 누적 초회보험료 중 일시납보험료의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6.4%p 증가한 90.6%를 기록하는 등 일시납이 초회보험료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
- FY2010 생존보험은 FY2009 하반기에 초과 성장한데 대한 기저효과가 작용하겠으나 연금에 대한 지속적 수요로 6.4% 성장할 전망이다.
- FY2009 하반기 일시적인 초과수요가 대부분 일시납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계속보험료 유입을 통한 성장이 지속되기 어려워 FY2010 하반기에는 기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연금상품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어 연금보험의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 다) 생사혼합보험

- 생사혼합보험은 금융위기 직후부터 20% 전후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금리 및 세제 측면에서 우위를 갖는 보험회사의 저축성상품이 시중 부동산자금을 흡수했기 때문임.
-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환경이 조성되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부동산자금이 보험권으로 몰리면서 이례적인 고성장세를 기록
- FY2009 2월 누적 생사혼합보험 초회보험료는 87.6% 성장하였으며, 계속보험료 또한 꾸준히 성장
- 생사혼합보험의 성장은 주로 방카슈랑스 채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카슈랑스 전문 보험사와 중소형사에서 주도

- FY2010 들어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는 공시이율에 대한 상한 설정, 전년도 고성장에 따른 하반기 기저효과 존재에도 불구하고 방카슈랑스 채널의 판매 호조로 11.4% 성장할 전망이다.
- 최근 금융당국이 방카슈랑스를 중심으로 한 고금리 저축성 상품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방카슈랑스 의존도가 높은 보험회사 및 은행의 방카슈랑스 영업 전략, 타 저축성 상품 대비 금리 및 세제 우위 등의 요인에 힘입어 고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2010년 2월 22일 발표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 상한을 공시기준이율의 20%로 제한하도록 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저축성상품의 공시이율은 여전히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

#### 라) 단체보험

- FY2009 일반단체보험은 신계약 부진 및 해지 등으로 수입보험료 감소 현상이 나타났으며, FY2010에도 마이너스 성장 전망됨.
- FY2009 2월 누적 초회보험료는 1.7% 감소하였으며, 해지 증가로 계속보험료도 18.1%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12.4% 감소
- FY2010에도 성장요인을 찾기 어려우며 해지 증가 추세도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7.2% 마이너스 성장 전망

<표 6> 일반계정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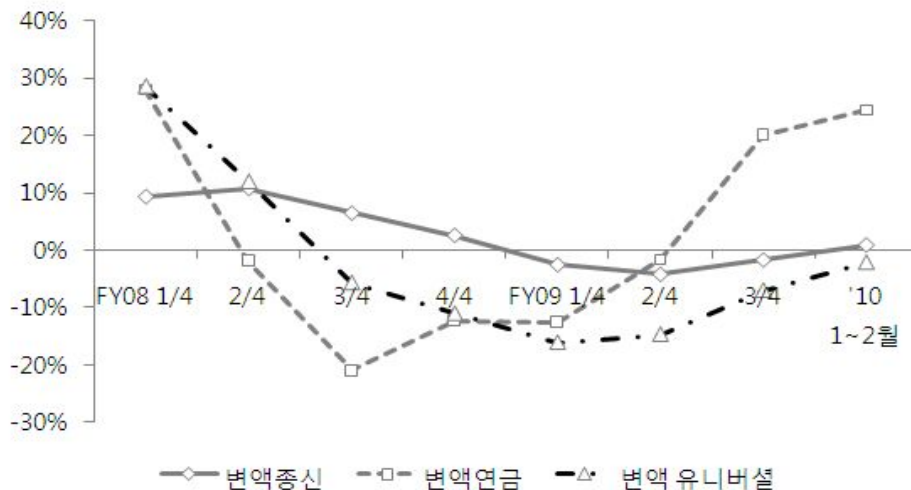
(단위 : 억원, %)

종 목	FY2007		FY2008		FY2009(E)		FY2010(F)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사망보험	297,700	4.2	294,531	-1.1	289,023	-1.9	297,548	2.9
생존보험	141,403	8.6	140,714	-0.5	153,036	8.8	162,831	6.4
생사혼합보험	66,043	-2.8	66,365	0.5	82,940	25.0	92,358	11.4
일반단체보험	11,712	-5.4	10,713	-8.5	8,978	-16.2	8,331	-7.2
합 계	516,858	4.2	512,324	-0.9	533,977	4.2	561,067	5.1

### 3) 변액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 변액보험은 FY2009 수입보험료 감소를 경험하였으며, 금융시장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같은 큰 폭의 성장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음.
- FY2009 하반기 신규가입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연금보험료 인상에 대비한 변액연금 수요 증가의 영향을 제외하면 수요 증가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

<그림 18> 변액보험 종목별 성장률 추이





- FY2010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지속적으로 수요가 회복되면서 변액연금보험을 중심으로 한 성장세 회복이 전망됨.
- 금융위기 이후 수익률 하락을 경험한 소비자들이 변액보험 가입에 적극적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금융시장에 대한 확신이 확대되면서 변액보험 수요가 점차 회복될 전망
- 향후 수수료 후취 상품이 개발되면 저축성 변액보험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가) 변액연금보험

- 변액연금은 FY2009 연금보험료 인상에 대비한 수요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이어서 FY2010에는 주식시장 안정에 힘입어 9.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금융시장 안정으로 변액연금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확신이 확대되면서 변액연금 수요 또한 점진적 증가 예상
- 또한 변액보험은 일반계정에 비해 초회보험료 중 일시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계속보험료의 활발한 유입 기대

#### 나) 변액유니버설보험

- FY2010에도 금융시장 안정에 따라 변액유니버설보험의 신규 수요는 증대되겠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4.9%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 주식시장 안정과 함께 신규가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절대금액이 크지 않고, 오히려 환매를 위한 해지로 인해 계속보험료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는 등 부진한 모습
- 그러나 자본시장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수요가 회복되고, 일반계정 생사혼합보험의 수요를 일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표 7> 변액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종 목	FY2007		FY2008		FY2009(E)		FY2010(F)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변액종신	9,112	6.4	10,357	13.7	9,932	-4.1	10,328	4.0
변액연금	82,497	63.6	79,433	-3.7	84,360	6.2	92,084	9.2
변액유니버설	82,302	46.2	86,125	4.6	77,197	-10.4	80,990	4.9
합 계	173,912	50.9	175,916	1.2	171,488	-2.5	183,403	6.9

주 : 변액종신보험은 변액기타보험을 포함함.

#### 4)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 FY2009 퇴직연금은 계열사 물량 유입, 퇴직금 사내유보금 손비 인정 비율 축소 효과 등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함.
  -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후 금융업권간 경쟁심화로 생명보험 부문의 퇴직보험 적립금이 유출되었으나 2009년 말 일부 대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으로 동 부문의 성장률은 39.3% 기록
  - 또한 FY2009 퇴직금 사내유보금 손비 인정비율이 35%에서 30%로 축소되면서 퇴직연금 가입이 증대된 효과 존재

-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은 2010년이 제도 전환의 종료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년도 고성장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일시적 요인의 소진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3.5% 축소될 전망이다.
- 생명보험사의 대기업 계열사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잔존한 대기업의 경우 복수사업자 선정을 선호하기 때문에 퇴직보험 감소 규모가 퇴직연금 증가 규모를 초과할 가능성 존재
- FY2010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기저효과로 인해 3.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도전환에 따른 금융업권간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상존

**<표 8>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종 목	FY2007		FY2008		FY2009(E)		FY2010(F)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퇴직보험	49,606	0.3	36,160	-27.1	30,917	-14.5	13,246	-57.2
퇴직연금	10,580	186.0	11,214	6.0	35,099	213.0	50,442	43.7
합 계	60,186	13.2	47,374	-21.3	66,015	39.3	63,688	-3.5

- 한편, 2010년 4월 기준 생명보험권 퇴직연금 가입자의 90.1%가 DB형에 가입했으며, 적립금 규모 중 DB형이 86.1%를 차지하는 등 생명보험 퇴직연금은 DB형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9>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종 목	FY2007		FY2008		FY2009(E)		FY2010(F)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개인보험	679,058	13.4	677,526	-0.2	696,487	2.8	736,139	5.7
- 생존	223,900	24.0	220,147	-1.7	237,396	7.8	254,915	7.4
- 사망	306,813	4.3	304,888	-0.6	298,954	-1.9	307,876	3.0
- 생사혼합	148,345	19.4	152,491	2.8	160,137	5.0	173,348	8.2
단체보험	71,898	9.7	58,087	-19.2	74,994	29.1	72,019	-4.0
- 일반단체	11,712	-5.4	10,713	-8.5	8,978	-16.2	8,331	-7.2
- 퇴직보험	49,606	0.3	36,160	-27.1	30,917	-14.5	13,246	-57.2
- 퇴직연금	10,580	186.0	11,214	6.0	35,099	213.0	50,442	43.7
합 계	750,956	13.0	735,614	-2.0	771,481	4.9	808,158	4.8

주 : 변액보험은 종목별로 개인보험에 포함됨.

## <보험상품 과당경쟁에 대한 조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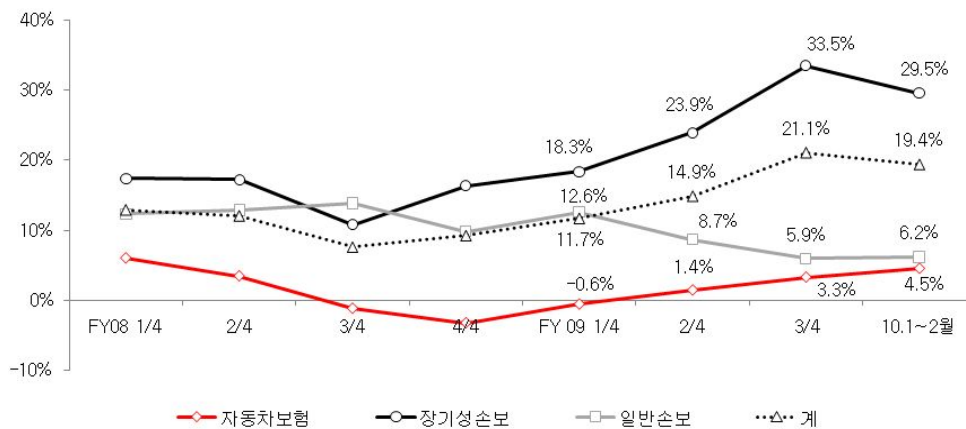
- 최근 저축성보험과 퇴직연금보험 시장에서 보험사들의 과열경쟁이 나타나는 양상이며, 금융감독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내놓고 있음.
    - 방카슈랑스를 통한 저축성보험 상품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몇몇 생·손보사들이 고금리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퇴직연금 유치를 위한 금융기관 간 고금리 경쟁도 확대되고 있음.
    - 금융감독당국은 고금리 경쟁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저축성보험 상품의 고금리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공시이율의 상한을 설정하고 직접적인 공시이율 인하를 지도하였으며, 방카슈랑스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
    - 지난 2월 발표된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 상한을 공시기준이율의 20%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됨.
    - 언론에 따르면,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들의 저축성 보험상품 고금리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판매 중이거나 개발 중인 저축성보험 상품의 공시이율을 20% 인하하라고 지시함.\*
- \* 서울경제, 「저축성보험 국내 과당경쟁 '브레이크」, 2010. 4. 13
-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고금리 과당경쟁을 억제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도내용을 발표함.
    - 금융회사들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사업손실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심사기준금리를 설정하도록 하고, 금리수준이 심사기준금리를 초과하는 경우 리스크관리 위원회의 사전심사 및 리스크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지도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리경쟁 이외의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함.

### 3. 손해보험

#### 1) 원수보험료

- FY2009 손해보험 전체 원수보험료는 장기성 손해보험<sup>2)</sup>의 지속적인 고성장과 자동차보험의 회복세에 힘입어 16.7%의 견조한 성장을 시현함.
- 자동차보험은 실물경기 회복 및 정부의 차량관련 세제 지원 효과로 차량등록대수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
- 장기성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 성장을 견인하던 상해 및 질병보험의 신계약이 실손의료보험 상품 표준화로 FY2009 3/4분기 이후 침체되었으나 저축성보험의 판매 호조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
- 일반손해보험은 FY2009 화재 및 해상보험의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특종 및 보증보험 성장에 의한 상쇄효과로 양호한 증가세 유지

<그림 20> 손해보험 종목별 성장률 추이



2) 장기성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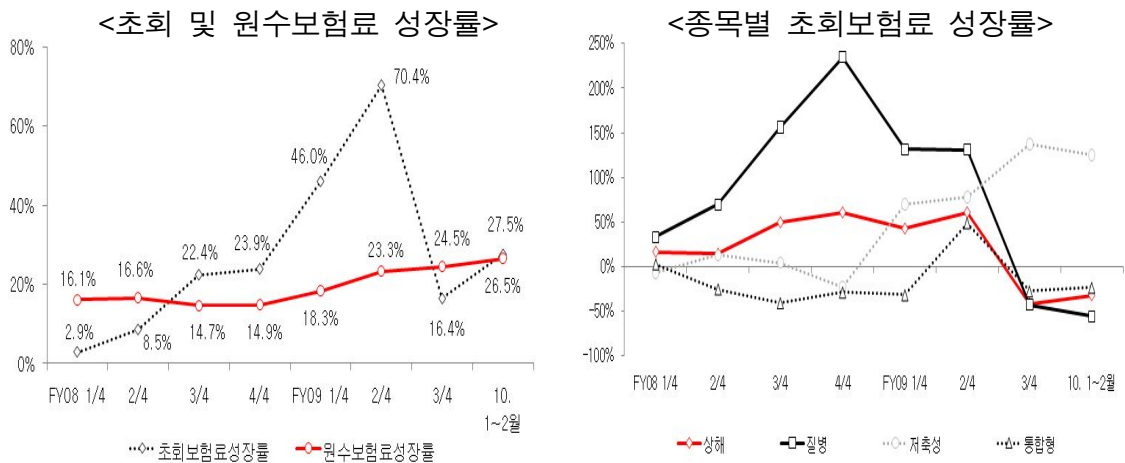
- FY2010 손해보험 전체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이 지속되고, 자동차보험 및 일반손해보험도 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13.9% 성장할 전망이다.
-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계속보험료 유입과 저금리 기조 유지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
-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내수경기 회복이 신차 및 고가차량 판매로 이어지면서 전년도 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손해율 악화 및 정비수가 상승 등으로 예상되었던 보험료 인상이 정부의 요율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불투명해짐에 따라 성장률은 소폭에 그칠 전망
- 일반손해보험은 비중이 큰 특종 및 보증보험이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체적으로도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 2) 장기성 손해보험

- FY2009 장기성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실손의료보험을 중심으로 한 장기손해보험의 고성장과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부문의 수요 급증으로 26.2% 증가함.
- 장기손해보험은 상반기 상해 및 질병보험의 고성장과 하반기 저축성보험의 신규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22.3%의 성장률을 기록
  - 실손의료보험 상품 표준화 이전에 가입하려는 대기 수요자가 급증하면서 장기손해보험의 초회보험료는 FY2009 2월 누적 기준 40.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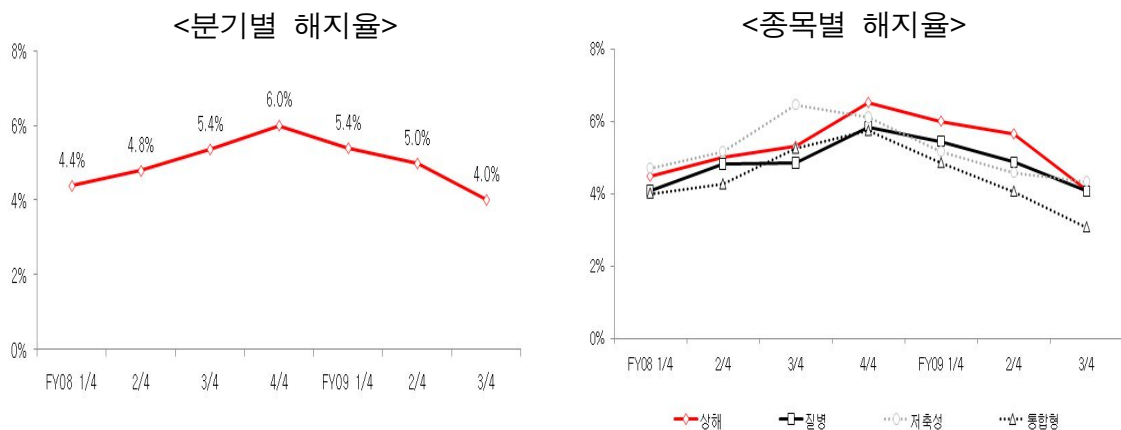
- 분기별로는 제도가 시행된 FY2009 2/4분기 이후 상해 및 질병 보험의 신계약 감소로 초회보험료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하반기 저축성보험의 판매 확대에 힘입어 회복세로 전환

**<그림 21> 장기손해보험 초회 및 원수보험료 성장률 추이**



- 장기손해보험의 해지율은 내수 경기회복에 따른 보험수요 증가와 기존 건강보험 상품에 대한 메리트 증대로 FY2008 4/4분기 이후 하향세를 시현

**<그림 22> 장기손해보험 해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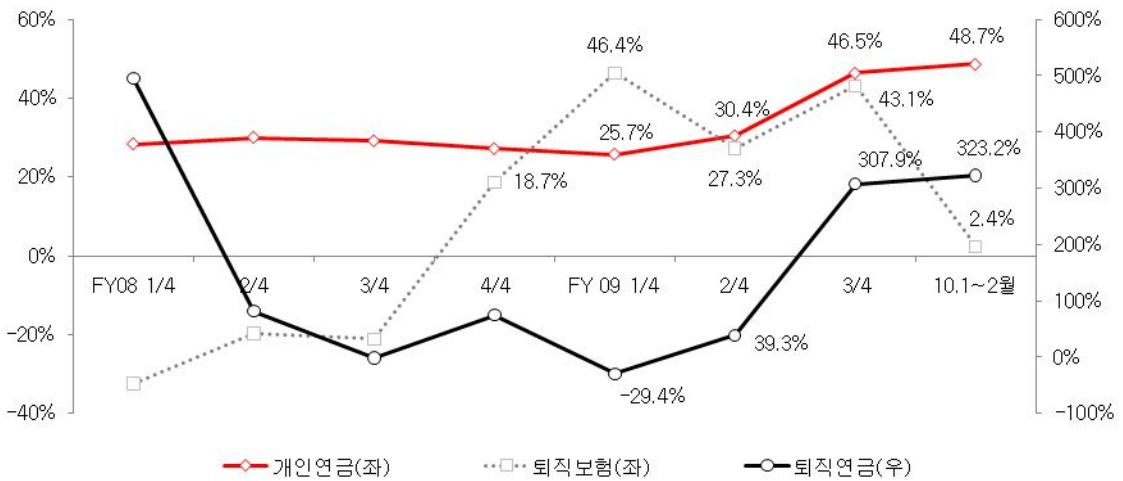


주 : 해지율=(효력상실액+해지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 개인연금의 원수보험료는 내수경기 회복과 연금상품에 대한 수요 증대로 38.5% 성장
- 퇴직보험의 원수보험료는 대형 사업장들의 계약 체결로 40.0% 증가했으며,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활성화 정책에 따른 수요 확대 로 171.4% 급증

**<그림 23>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성장률 추이**



- FY2010 장기성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의 고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의 성장 둔화로 소폭 하락한 19.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전년도 신계약 급증과 해지율 안정화 추세로 계속보험료의 안정적인 유입이 예상되면서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16.8%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 기조를 유지할 전망
- 그러나 전년도 신계약 급증을 주도한 실손의료보험의 선계약 효과 종료, 중복가입에 대한 사전확인 강화, 실손의료보험 상품 표준화에 따른 업권간 경쟁 심화 등의 요인들은 초회보험료 성장률을 다소 둔화시킬 전망

- 종목별로는 상해 및 질병보험 등 실손의료보험 부문에서의 견조한 증가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저축성보험에 대한 수요 확대도 지속될 전망
  - 기대수명 증대, 노인부양비 및 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른 개인건강보험에 대한 수요에 힘입어 상해 및 질병보험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
  - 저축성보험은 경기회복 및 저금리 지속에 따른 고금리 상품에 대한 수요 증대로 견조한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역마진 우려에 따른 공시이율 인하 추세 등은 성장에 주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통합형보험은 실손의료보험 상품 표준화와 상해 및 질병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가 신계약 매출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전년도 수준의 성장에 그칠 전망
- 개인연금은 목돈 마련 및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노후대비 상품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 자산관리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계의 연금판매 확대 전략 등에 힘입어 36.4% 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
- 퇴직보험은 기존 퇴직보험 관련 제도 종료로 앞두고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활성화 조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큰 폭 성장이 예상
  - 2011년부터 퇴직보험 및 신탁에 대한 손비인정 제도 폐지가 예정되어 있어 기존 퇴직보험·신탁의 퇴직연금 전환 및 신규 가입이 증가하면서 퇴직보험시장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비해 퇴직연금시장은 정부의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 조치가 본격화됨에 따라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

- 퇴직연금시장 확대 전망에도 불구하고 시장선점을 둘러싼 타업권과의 치열한 경쟁과 상대적으로 열세인 영업력 등의 제약 요인으로 FY2010 퇴직보험 성장률은 전년도 수준에 머무를 전망

**<표 10> 장기성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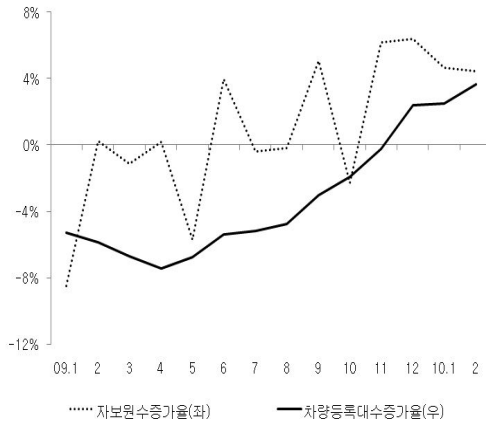
종 목	FY2007		FY2008		FY2009(E)		FY2010(F)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장기손보	163,435	19.5	188,829	15.5	230,930	22.3	269,806	16.8
개인연금	9,995	25.3	12,853	28.6	17,801	38.5	24,281	36.4
퇴직보험	8,258	26.2	6,807	-17.6	9,530	40.0	3,583	-62.4
퇴직연금	2,133	61.0	3,322	55.7	9,016	171.4	22,143	145.6
합 계	183,821	20.4	211,810	15.2	267,278	26.2	319,813	19.7

### 3) 자동차보험

- FY2009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내수경기 회복 및 차량 관련 세제지원책 효과에 따른 차량등록대수 증가로 2.6% 증가함.
-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작년 말까지 시행된 정부의 차량 관련 세제지원책 효과로 인한 신차판매 급증이 자동차보험시장의 완만한 회복세로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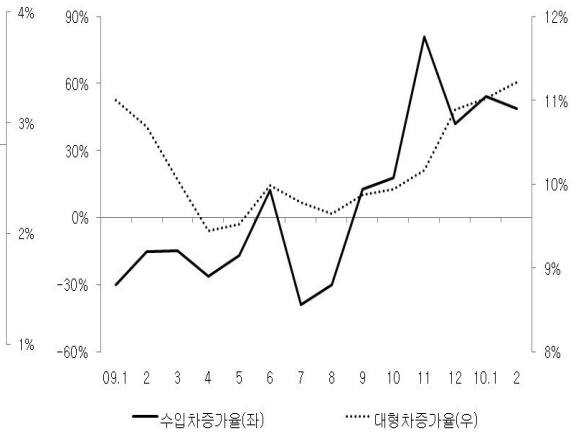
## <그림 24>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및 차량등록대수 증가율 추이

<자보원수보험료 및 차량등록대수 증가율>



자료 : 국토해양부

<수입차/대형차 등록대수 증가율>



자료 : 국토해양부

- FY2010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본격적인 내수경기 회복에 따른 성장 여건 개선으로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온라인채널 판매 비중 확대 및 보험료 인상 요인 소멸 등으로 3.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FY2010 자동차보험은 실물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차량등록대수 증가세 및 대물·자차담보 강화 추세가 이어지고 보험료 할증 기준 다양화에 따른 요율 인상 효과 등에 힘입어 회복 기조가 지속될 전망
  - 특히, 보험료가 고가인 수입차와 중·대형차 판매 호조로 인한 차량의 고급화 추세도 자동차보험시장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온라인 판매 채널의 비중 확대에 의한 가격경쟁 심화, 요일제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 시행, 정부의 요율 합리화 정책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불투명은 자동차보험시장 성장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표 11>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종 목	FY2007		FY2008		FY2009(E)		FY2010(F)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자동차	108,095	12.0	109,371	1.2	112,215	2.6	115,806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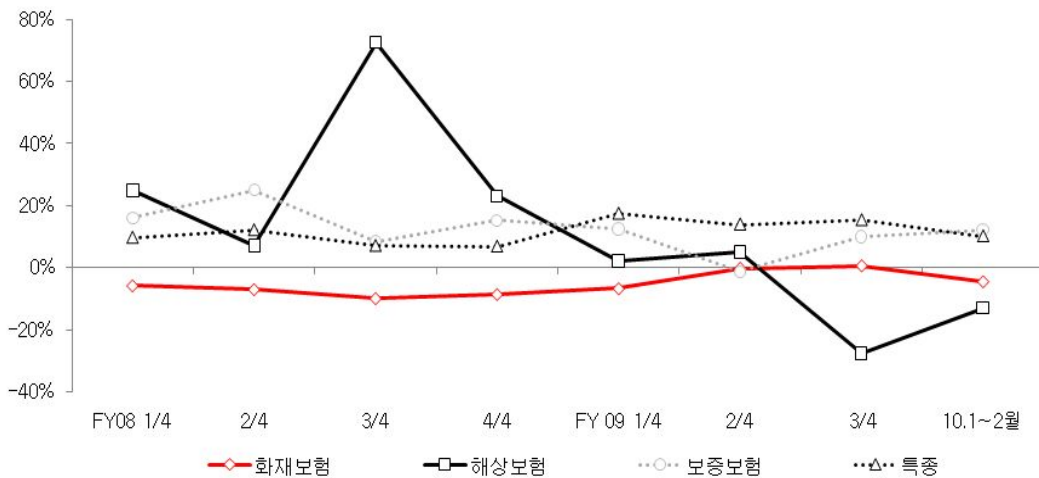
#### 4) 일반손해보험

□ FY2009 일반손해보험은 특종 및 보증보험의 증가가 화재 및 해상보험의 감소세를 상쇄하여 8.1%의 성장률을 나타냄.

- 화재보험은 FY2009 3/4분기 주택물건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큰 공장물건과 일반물건이 성장하여 0.7% 증가했으나 2010년 1~2월은 전 종목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4.4% 감소
- 해상보험은 FY2008 환율 영향으로 인한 고성장의 기저효과로 9.4% 감소
  - 해상보험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선박보험과 적하보험이 기저효과로 2010년 1~2월 각각 24.0%, 11.5% 감소
  - 단, FY2009 3/4분기 -27.5%의 해상보험 마이너스 증가세가 2010년 1~2월 약화됐으며 이는 수출입 물량의 증가에 기인
- 보증보험은 FY2009 2/4분기 1.3% 감소하였으나 이후 본격적인 경기회복과 함께 8.7% 성장
- 특종보험은 기술, 책임, 상해, 종합보험 등 전 종목의 성장으로 13.6%의 성장률을 시현
  - 상해보험은 단체상해보험의 지속적 성장으로 2010년 1~2월 16.0% 증가
  - 종합보험은 FY2009 3/4분기 5.3% 증가했으나 2010년 1~2월 기업성 물건 감소로 9.0% 감소

- 책임보험은 2010년 1~2월 일반배상책임보험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감소효과가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의 성장을 상쇄하여 0.1% 감소
- FY2009 기술보험은 공공부문 건설투자 증가에 힘입어 48.0% 성장

**<그림 25> 일반손해보험 성장률 추이**



- FY2010 일반손해보험은 경기회복 및 수요증가로 인한 특종 및 보증보험의 성장에 힘입어 8.3%의 성장이 예상됨.
  - 화재보험은 종합보험 성장에 따른 물건이탈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노래방 및 PC방 등 중·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보험 의무화가 2011년부터 실시됨에 따라 마이너스 성장이 멈출 것으로 예상
  - 해상보험은 환율 안정화로 가격변동성이 적어지고 동시에 경기회복으로 인한 수출입 물동량 증가로 5.8%의 성장이 예상
  - 보증보험은 건설경기 둔화로 관련 이행보증보험시장의 축소가 예상되나 경기회복에 의한 기타 보증보험의 성장으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9.6% 성장할 전망

- 특종보험은 상해보험과 책임보험의 성장에 힘입어 9.1%의 양호한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
  - 상해보험은 일반상해보험의 경우 큰 변동성이 없겠으나, 환율 하락과 경기회복으로 여행보험 및 단체상해보험이 성장하여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
  - 종합보험은 관심 증대로 인한 수요증가로 성장이 예상되나, 기업성 물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변동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
  - 책임보험은 전문직업인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이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에도 배상책임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수준의 개선으로 13.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기술보험은 건설 관련 기술보험이 FY2009 공공부문의 건설투자 증가로 높은 증가를 보였으나, FY2010에는 기저효과 및 건설경기 둔화로 3.2% 감소할 전망

**<표 12>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전망**

(단위 : 억원, %)

종 목	FY2007		FY2008		FY2009(E)		FY2010(F)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화 재	3,075	-1.8	2,835	-7.8	2,767	-2.4	2,772	0.2
해 상	6,518	3.1	8,507	30.5	7,707	-9.4	8,155	5.8
보 증	9,940	-13.0	11,529	16.0	12,532	8.7	13,735	9.6
특 종	28,371	9.9	30,901	8.9	35,101	13.6	38,279	9.1
합 계	47,904	2.6	53,771	12.2	58,107	8.1	62,942	8.3

주 : 특종보험 기타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

**<표 13>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종 목	FY2007		FY2008		FY2009(E)		FY2010(F)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화 재	3,075	-1.8	2,835	-7.8	2,767	-2.4	2,772	0.2
해 상	6,518	3.1	8,507	30.5	7,707	-9.4	8,155	5.8
자동차	108,095	12.0	109,371	1.2	112,215	2.6	115,806	3.2
보 증	9,940	-13.0	11,529	16.0	12,532	8.7	13,735	9.6
특 종	28,371	9.9	30,901	8.9	35,101	13.6	38,279	9.1
장기손보	163,436	19.5	188,829	15.5	230,930	22.3	269,806	16.8
개인연금	9,995	25.3	12,853	28.6	17,801	38.5	24,281	36.4
퇴직보험	8,258	26.2	6,807	-17.6	9,530	40.0	3,583	-62.4
퇴직연금	2,133	61.0	3,322	55.7	9,016	171.4	22,143	145.6
합 계	339,818	14.9	374,954	10.3	437,599	16.7	498,561	13.9

주 :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

## 5) 손해율

□ FY2009 손해보험 전체 손해율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로 0.7%p 증가한 75.5%를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의 손해율은 신계약 확대에 따른 경과보험료 증대로 상반기에는 하향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이후 지급보험금이 급증하면서 0.1%p 소폭 상승

○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차량 운행 증가 및 겨울철 폭설로 인한 사고 발생률 증가 등의 영향으로 5.9%p 상승한 75.6%를 시현

□ FY2010에는 상해 및 질병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기저효과로 인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상해 및 질병보험의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상품표준화 이전에 건강한 우량 계약자들의 가입이 급증하고, 2009년 말 신종플루로 인한 손해율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손해율이 개선될 전망
  - 다만, 의료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큰 폭의 손해율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성장성 회복으로 인한 보험료 규모 증대 및 정부의 손해율 안정화 대책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개선된 7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올해 9월부터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 할증률을 인상하는 한편, 외제차에 대한 보험료 차등화 제도도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지만 여행차량 증가로 손해율 개선폭은 제한적일 전망

**<표 14> 손해보험 종목별 손해율 추이**

(단위 :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E)	FY2010(F)
장기손보	80.7	79.4	79.5	78.6
자동차	73.0	69.7	75.6	73.8
화재	44.2	39.7	31.2	41.2
해상	57.7	127.1	74.2	66.2
보증	19.5	48.9	49.9	35.0
특종	60.4	64.7	60.1	61.4
전체	74.2	74.8	75.5	75.0

주 : 1) 개인연금, 퇴직보험(퇴직연금 포함), 해외원보험, 해외수재보험을 제외함.  
 2)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임.  
 3) 장기손해보험은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재무손해율(적립보험료, 각종 환급금 감안) 개념임.